

이낙연, 당권 도전으로 국난극복 각오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무엇을 했느냐” 질문에 답하려” 출사표 “가장 먼저 김종인 만날 것”...시급 현안 해결 위해 여야협의체 제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당대표 경선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오는 8월 29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는 이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이 출마해 맞대결을 벌일 예정이다.

7일 낮 12시 10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대표 선거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두 시간도 채 남기지 않은 가운데 막판까지 직접 선언문을 고치며 고쳤다. 그렇게 만들어진 2300여자의 출마 선언문에는 당권 도전으로 국난극복을 위한 ‘역사적 책임’을 이행하겠다는 이 의원의 각오가 담겼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8·29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하며 “민주당과 저에게 주어진 국난극복의 역사적 책임을 이행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너는 어디에서 무엇을 했느냐”는 훗날의 질문에 제가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민주화 이후 최장수 총리와 전례 없는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의 경험을 살려 저는 당면한 위기의 극복에 최선으로 대처하겠다”며 “국난극복의 길에 때로는 가시밭길도, 자갈길도 나올 것이다. 저는 어떤 어려움도 마다

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시급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경제와 사회, 개혁 부분의 입법을 주문하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한편 ‘일하는 국회’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 방안으로 ‘민생 연석회의’나 ‘평화 연석회의’와 같은 여야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새로운 각오와 태세’로 혁신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국민은 압도적 다수의석을 민주당에 주시면서, 그만큼의 책임을 맡기셨다”며 “민주당은 모든 역량을 결집한 최선의 태세로 위기를 이겨내야 한다. 지도 열외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수많은 지도자를 배출하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자랑스러운 역사를 계승하고 먼 미래까지를 내다보며 민주당을 혁신하겠다”며 “저는 40만 당원, 100만 권리당원과 함께 민주당의 쇄신을 더 촉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당정 간 새로운 관계 형성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중첩된 위기는 당정협력의 새로운 강화를 요구한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건설적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가장 먼저 광주 찾은 김부겸 “2002년 盧처럼대세 꺾겠다”

광주와 인연 강조 지지 호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 예정인 김부겸 전 의원이 7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출마를 결심한 김부겸 전 의원이 7일 민주당 심장부 광주를 찾아 지지 호소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대표 임기 2년의 중책을 책임지고 끝까지 완수해 2021년 재보궐,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고 김대중과 노무현, 문재인의 꿈을 완성해 내겠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가장 먼저 광주를 찾았다”며 ‘광주와의 깊은 인연’을 소개했다. 그는 “어린 시절 자주 찾았던 광주 공군비행장은 아버지의 근무지였다”며 “5·18민주항쟁 때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대구지역 행동책으로 10대 현상수배자에 이름이 오르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 “‘광주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광주를 살려야 합니다’라는 유인물을 배포해 신군부에 수감되기도 했다”며 “그러나 5·18 40년이 지난 지금도 왜곡된 역사와 은폐된 진실은 규명되지 못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국민과 역사적으로 정의된 5·18의 가치를 폄훼·모독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5·18외곡에 대한 엄중한 처벌, 유공자 명예회복을 위한 법 개정을 통해 정의가 진실의 토대에 바로설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자신을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지역주의를 넘어설 지도자’라며 광주가 ‘대역전의 드라마’를 써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광주를 생각하면 노무현 대통령의 2002년 경선이 떠올른다”며 “광주시민들은 대세론과 지역주의를 등에 업은 인물이 아닌 당에 헌신한 후보, 책임감을 지는 후보 노무현을 선택했다”고 회고했다. 이어 “일부 언론에서는 이번 전당대회를 영·호남의 대결로 규정하고 있지만, 지금이야말로 누가 몸으로 맞서 지역주의의 벽을 넘어 민주화와 지역주의 정신을 온전히 계승할 후보인지 선택받아야 할 때”라고 강조

했다. 그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부대변인으로 일했고, 그의 영향을 받았다”며 “부산에서 진보의 희망을 싹틔운 노무현의 뒤를 이어, 대구경북에서 지역주의를 허물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세를 꺾고, 역전의 드라마를 일궈낸 노무현 대통령처럼 당대표로서 임기를 책임 있게 마치고, 당의 승리를 가져다 줄 당대표가 되겠다고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광주와 대구가 ‘달빛동맹’을 맺은 형제의 도시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대구에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히 늘었던 지난 2월, 광주는 대구에 마스크 2만장과 함께 의료지원단을 급파했다”며 “최근 광주의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아지자 이번엔 도움을 받았던 대구가 광주에 200명상 지원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그는 “어려울 때 돕고, 때로는 품으며 광주와 대구는 형제가 됐다”며 “‘달빛동맹’으로 맺어진 형제도시 대구에 대한 고마움,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지금 민주당에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책임질 당대표가 필요하다”며 “다가올 2021재보궐, 2022년대선과 지방선거를 이길 수 있는 당대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 쉽지 않지만 이길 수 있다. 자신 있다”며 “평생을 민주화와 지역주의 해소의 길을 걸은 김부겸에게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통합당 복귀한거 맞아?...답답한 민주당 “개원식도 협의 안돼”

7월 임시국회 일정 협의 지지부진...원내대표 회동도 못해 미래통합당이 국회 보이콧을 철회하고 원내 복귀했지만 21대 국회 개원식 일정 협의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아직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도 이뤄지지 못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한 이후에 여야가 일정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 개원식이 이번주를 넘길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21대 국회 개원 연설은 1987년 개헌 이후 가장 늦은 개원연설이 된다. 2008년 7월 11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18대 국회 개원연설을 한 것이 현재까지 가장 늦은 기록이다. 여야는 7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 날짜를 놓고 대치하는 등 의사 일정을 잡지 못하고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 민주당은 급한대로 이날 오후 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를 열고 향후 상임위 운영 논의에 들어간

다. 당초 이날 소집예고했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전체회의는 여야 간사단 협의를 거쳐 상임위 일정을 다시 조율하기로 하면서 취소됐다. 박 원내대변인은 “내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이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이 있다”고 전했다.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 062) 971-7400
 광고 직통 224-5800
 팩 스 222-5547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